

2019년 제52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 보고

국제부



인터스테노가 창설된 지 133년째인 2019년 7월,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¹⁾가 이탈리아 칼리아리에서 열렸다. 역사적으로 인터스테노 총회는 세계적인 대도시들에 의해 개최되어 왔으며 오직 제1차·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만 그 활동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제52차 총회에 대한민국은 김덕진 대한속기협회이사장을 단장으로 총 12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 기 간 : 2019년 7월 11일(목)~7월 19일(금)

■ 장 소 : 이탈리아 (로마·칼리아리)

■ 한국대표단(총 12명)

- 단장 : 김덕진(협회 이사장)

- 대표 : 정순화(협회 이사)

1) 인터스테노 창립총회는 1887년 9월 26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13개국에서 온 145명의 속기인들이 참석한 성대한 대회였다.

손석련(협회 이사)
김정동(협회 감사)
김한우(협회 이사)
조미경(협회 이사)
김미영(협회 회원)
허은영(협회 회원)
김병수(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원)

- 경기대회 출전 선수

정지은(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원)
서정민(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원)
신현진(협회 회원)

■ 참가국 및 참가인원 : 29개국, 500여 명

사무총장 데니(Danny Devriendt)의 보고(E-news 90호)에 따르면 이번 칼리아리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회 참가비를 지불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29개국 399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고별만찬행사에는 인터스테노 회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칼리아리 총회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번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에 공식 참가한 29개국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 32개국, 2019 기준).

- 참가국 명단: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우루과이

■ 참가목적

-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 및 IPRS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기록인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각국의 기록 시스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수집
- 우리나라 기록 시스템과 회의록 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 속기경기대회 참가

2019 인터스테노 총회 일정

일시	활동 내용
7월 11일(목)	
12.00-16.00	이탈리아 상원의회 방문
7월 12일(금)	
14.00-16.30	인터스테노 집행부 회의
17.30-20.30	참가자 등록
17.30-20.30	속기기계 전시회
7월 13일(토)	
08.00-16.00	속기 관련 기계 전시회 (총회 기간 동안 지속됨)
08.30-10.30	인터스테노 중앙위원 회의 1
13.30	워드프로세싱 경기
18.00 sharp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 개막식
7월 14일(일)	
07.30	텍스트 프러덕션 경기대회
13.00	오디오 기록 경기대회
14.00-18.00	IPRS 주제 발표
16.30	노트테이킹 경기대회
7월 15일(월)	
08.00	스피치 캡처링(SC) 경기대회
11.30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RT) 경기대회
16.00-18.00	회계위원회 회의
7월 16일(화)	
09.00-18.00	콘퍼런스
7월 17일(수)	
16.30-18.30	과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회의
20.00	중앙위원 만찬
7월 18일(목)	
08.30-10.30	인터스테노 중앙위원 회의 2
11.00-13.00	인터스테노 총회
16.00-17.30	경기대회 시상식
19.00	송별만찬
7월 19일(금)	
08.30-19.30	카를로포르테섬 방문

■ 제52차 INTERSTENO 총회의 주요 행사

1. 이탈리아 상원의회 방문

○ 7월 11일, 대표단은 로마에 있는 상원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등 대표단들과 상원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였는데 마침 본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회의 장면을 참관하는 행운을 얻었다. 본회의 도중에 모든 상원의원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으므로써 참관하고 있는 각국 속기대 대표단에게 환영의 뜻을 표해 주었다. 본회의장에는 카메라나 휴대폰 등 소지품을 갖고 입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이탈리아 상원의회 내의 세미나 장소- 주제: 이탈리아 기록의 역사)

○ 본회의장 참관을 마친 대표단은 이탈리아 상원의회의 기록부에서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상원 속기사인 줄리아(Giulia Torrgrossa)의 주제 발표를 청취하였다. 줄리아는 이탈리아 의회의 속기 역사 및 운영, 그리고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속기 기계인 '미켈라 키보드'는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는데 1880년부터 도입되어 의회 속기록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미켈라'는 기계를 발명한 Antonio Michela Zucco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이탈리아 상원의 기록시스템에 대하여 발표하는 상원 속기사 줄리아 (Giulia Torregrossa))



(1880년부터 이탈리아 상원의 기록시스템에 도입된 미켈라 키보드, 발명자 Antonio Michela Zucco의 이름을 따서 명명)

○ 이탈리아 의회의 구성 및 기능

◆ 하원

- 총 630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며 비례대표제로 선출
- 임기 5년
- 선거권 18세 및 피선거권 25세

◆ 상원

- 315명의 선출직과 소수의 종신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15명은 주 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
- 임기 5년
- 선거권 25세 및 피선거권 40세

○ 의회 기록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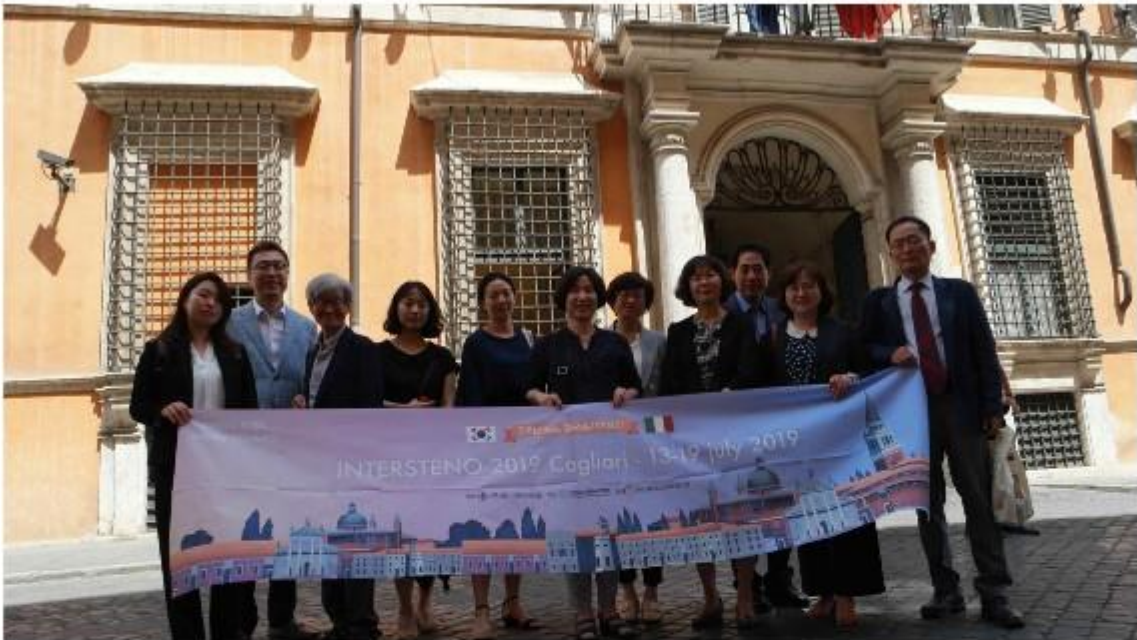
- 피에몬테 의회에서는 기록부가 조직되어 수필속기로 기록하였다.(토리노 지방 1848-1861)
- 이탈리아 왕국의 상원의회(토리노 1861-1865, 플로렌스 1865-1871, 로마 1871-1946)에서는 1880년부터 Michela 속기 시스템이 도입되어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1882년부터 요약보고서가 도입되었다.
- Michela 키보드는 피아노 건반을 닮았는데 Antonio Michela Zucco(1815-1886) 박사에 의하여 발명되었다.

○ 상원 본회의 회의록 작성 시스템

- 속기 및 편집인원: 총 28명(15명의 속기사와 13명의 편집인)
- 본회의 속기: 5분씩 교대
- 본회의 편집: 30분씩 교대
(상원 본회의장에는 속기사와 편집인이 모두 회의에 임석한다)
- 본회의장에서 속기사가 기록한 초안은 편집인에 의해 1차 교정작업이 40분 동안 이루어지고 최종 회의록은 다음날 회의 전에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 회기 중에는 회의록 초안이 실시간 기록 후 30분 후에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상원 본회의장 속기석에서 미켈라 키보드로 기록하고 있는 속기사와 상황 체크하는 편집인)



(상원의회 방문 기념사진)

2. 개막식



(태극기를 들고 무대에서 인사하는 김덕진 단장)

○ 칼리아리에서 열린 제52차 총회 개막식은 무대가 있는 대형 극장(Teatro Massimo)에서 7월 13일(토)에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인터스테노 회장인 리안(Rian)에 의해 개회가 선언된 뒤 이어지는 무대행사는 카를로(Carlo Eugeni, 과학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유쾌하게 진행되었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콘테스트(인터넷을 통한 국제 키보드 대회)에서 수상한 8명에 대해 시상식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샤프데니아의 전통춤과 무용을 선보여 참가한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총회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이 자국의 국기를 들고 인사하는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김덕진 단장이 태극기를 들고 무대에 올라 인터스테노 입성을 알렸으며 개막식에 참석한 인터스테노 회원들이 아주 멋지다면서 유쾌한 멘트로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인터스테노 주제가 Verba Manent 초연 장면)

○ 이번 제52차 총회 개막식에서는 인터스테노 주제가(anthem)가 역사상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는다”는 뜻을 가진 제목- “Verba Manent”(The Spoken Word Remains)의 인터스테노 주제는 반복적인 후렴구로 인해 친숙하게 따라 부를 수 있다.

이 주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인터스테노 멤버들의 제안이 있었다. 카를로(Carlo Eugeni)와 한나(Hannah Kohl)는 노랫말을 만들었고 마테오(Matteo

Magris)가 곡을 붙였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합창단의 수어와 합창 속에서 소프라노 앨리스(Alice Maded)는 인터스테노 주제가를 멋지게 초연하였다. 이로써 마침내 13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인터스테노의 이야기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주제가를 갖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주제가 “Verba Manent”²⁾는 큰 의미가 있다.

작사: Carlo Eugeni and Hannah Kohl

작곡: Matteo Magris.

오케스트라: 알레산드로 카브라스(Alessandro Cabras)가 지휘하는
반다 디 모나스티르(Banda di Monastir)

노래: Alice Madeddu(소프라노).

합창단: 스테파니아 코코다(Stefania Coccoda)와 루시아나 레다(Luciana Ledda)가
지휘하는 MusicàLIS

2) 인터스테노 주제가(Intersteno Anthem) 초연 무대 감상 및 주제가 탄생 스토리는 인터스테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ntersteno.org/anthem/>



(회장 리안의 개막식 개회 선언)



(개막식에 참석한 사람들)



(개막식에서 선보인 사르데냐의 전통 춤)

3. 중앙위원회 회의(Council meeting)



(중앙위원회 회의장)

○ 중앙위원회 회의(Council meeting)는 인터스테노 집행부와 인터스테노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인터스테노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여기서 상의되는 안건들은 총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제52차 칼리아리 총회에서는 중앙위원회 회의를 7월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회장 리안(Rian)의 보고와 사무총장 데니(Danny)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순서로 회장은 인터스테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칼리아리 총회를 준비하면서 인터스테노 임원진들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헤이그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였다. 2018년도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던 중앙위원회 회의와 IPRS 미팅에 대한 심의(review)를 하였고, 차기 연도(2019-2021) 임원진에 대한 구상 및 2020년에 개최될 중앙위원회/IPRS 미팅의 개최지와 2021년도 총회 개최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이어서 사무총장인 데니(Danny Devriendt)의 사회로 안건 심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2018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중앙위원회(16개국 45명 참가) 이사록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차기연도 예산 관련 회계보고 후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심판위원장에는 Georgette Sante(벨기에), 과학위원장에는 Carlo

Eugeni(이탈리아)가 연임하기로 하였다. 집행부 명단은 후술하는 “총회”편에 실기로 한다.

한편, 다음 연도(2020년)에 실시되는 인터넷 콘테스트에 대하여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등록은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INTERSTENO Council & IPRS 미팅의 개최지³⁾와 제53차 총회 개최지는 결정되지 못한 채 중앙위원회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3) 그 후 2020년 INTERSTENO Council & IPRS 미팅의 개최지는 프랑스 보르도로 결정되었다.

4. 총회(General Assembly)



(안건 처리 중인 총회)

○ 총회는 회원국 대표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등으로 구성된 인터스테노 내에서 최고 권위 있는 기구이다.

○ 총회는 7월 18일(목) 사르데냐 재단(Fondazione di Sardegna) 내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총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은 중앙위원회 회의(Council Meeting)에서 일차로 심의된 것들이다. 주요 사안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장 리안(Rian Schwarz-van Poppoel)은 2017년 베를린 총회 이후 중앙위원들의 미팅 등 그간의 집행부의 인터스테노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사무총장 데니(Danny Devriendt)는 인터스테노의 결산 및 향후 2년 동안(2020-2021)의 예산에 대한 회계보고가 있었다. 회원의 회비는 37유로로 의결하였다.

-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에 대한 추대가 있었다.

Jaroslav Zaviačič(체코)-명예회장

Waltraut Dierks(독일)-명예회원

오랜 기간 인터스테노에 헌신하고 봉사하여 온 공을 높이 인정하여 인터스테노의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였다. 두 사람의 이력 소개 후 총회 참석자들은 박수로써 인준하였다.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중앙위원 회의나 총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명예회원이 된 Waltraut에 대하여 경의의 박수를 보냄, 명예회장 Jaroslav는 사정 상 불참하여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인사함)

- 향후 2년간(2020-2021) 집행부에서 일하게 될 멤버 선출은 중앙위원 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한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Rian Schwarz-van Poppoel(네덜란드)

부 회 장: Russel page(미국)

부 회 장: Emrah Kuyumcu(터키)

사무총장: Danny Devriendt(벨기에)

보드멤버: Krystian Wawrzynek(체코)

- 사무총장 데니는 회원국의 대표를 국가별로 차례차례 호명하여 확인하였다.
- 회계위원회(auditing committee) 멤버는 추후에 3개국(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터키)의 멤버들 중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될 과학위원회 위원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김한우 위원이 유임되었다.

- 일반적으로 차기 총회의 개최지를 결정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2년 총회 개최도시 후보지가 몇 나오기는 했으나 결정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개최지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회원국 회원들이 중앙위원회나 총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이나 이동수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임 회장(리안)의 미래 비전 제시
연임하게 된 회장 리안은 인터스테노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하며 새로운 회원국가를 영입하고 음성인식 등 신기술을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마지막으로, 사무총장 데니는 앞으로도 신임 집행부가 인터스테노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제52차 인터스테노 총회는 막을 내렸다.

5. IPRS(Intersteno Parliamentary and other professional Reporters' Section) Meeting



(IPRS 미팅에 참석하여 주제발표 청취하는 회원)



(음성인식에 대하여 주제발표하는 소리자바-한국)



(음성인식에 대하여 주제발표하는 Paolo Paravento -이탈리아 PerVoice사)

○ IPRS는 제40차 인터스테노 총회(1993, 이스탄불 개최)에서 창설된 조직이다. 창설 당시 의회속기사로만 구성된 조직체(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였으나 그 후 많은 기록 전문가 및 텍스트 캡처 조직들이 IPRS에 참여함에 따라 의회속기사부에서 확대하여 '의회 및 기록전문가부(Intersteno Parliamentary and other professional Reporters' Section)'로 명명하기로 2012년 2월 겐트(Ghent)에서 열린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IPRS는 속기 관련 신기술 및 직업 등 여러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스테노 총회 및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52차 총회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제안서(proposal)가 제출되었는데 회장 리안과 과학위원장인 카를로는 이를 분류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한다.

○ 7월 14일 개최된 IPRS 미팅의 주제발표는 회장이자 IPRS 코디네이터인 리안(Rian Schwarz-van Poppel)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계 속기 흐름과 변화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한국 소리자바 회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어 한국대표단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그밖에 이탈리아를 비롯한 캐나다,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 및 각국의 속기업무 관련하여 주제발표 및 질의와 응답 등 토론이 진행되었다.

▲IPRS 미팅의 발제자 및 주제

발제자 (국가)	제1세션: 기술(Technology)
Iulia Mihalache (캐나다)	윤리 및 기술: 기업은 새로운 툴(tool)을 개발할 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가? (Ethics and Technologies: Do businesses address ethical issues when developing new tools?)
Paolo Michela Zucco & Fabio Angeloni (이탈리아)	국제적인 미켈라 알파벳, 아직도 최신의 아이디어. (The international Michela alphabets, an idea that is still current.)
Paolo Paravento (이탈리아)	디지털 번역에 대한 PerVoice의 기술적인 솔루션 (PerVoice technological solutions in diamesic translation)
우재호 (한국)	소리자바의 협력적 인공지능 솔루션 (Sorizava Collabo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
발제자 (국가)	제2세션: Reporting Today and Tomorrow
John Vice (영국)	공식 기록물과 보디랭귀지 (Official Reports and Body Language)
Eero Voutilainen (핀란드)	의회기록물에서 일상 언어와 편집의 선택 (Everyday linguistic and editorial choices in parliamentary reporting)
Henk-Jan Eras, Deru Schelhaas, Germ Sikma (네덜란드)	우리는 미래의 기록을 보았으며 그 이름은... - 2030년 의회 기록 (We have seen the reporting future and its name is... - Parliamentary reporting in 2030)

6. 콘퍼런스(Conference)



(일본의 음성인식 시스템에 대하여 주제발표하는 가와하라 교수)



(실시간 자막 제공에 대하여 주제발표하는 스페인의 Rocio Bernabé Caro)

○ 콘퍼런스는 7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기술 및 업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번 콘퍼런스에서도 음성인식의 활용 방안 등 기술적인 관점에서 주제발표가 많이 이루어졌다.

▲콘퍼런스 발제자 및 주제

발제자 (국가)	제1세션: Linguistic aspects
Carlo Eugeni (이탈리아)	기록 및 캡션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 Diamesic transl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for reporting and captioning disciplines
Eero Voutilainen (핀란드)	의회 기록에 있어서 언어와 편집의 원칙 (Linguistic ideologies and editorial principles in parliamentary reporting)
발제자 (국가)	제2세션: Live subtitling
Giulia Torregrossa & Daniele Casarola(이탈리아)	오픈소스 시대의 이탈리아 속기 기계 (Italian shorthand machines in the open source era)
Rocío Bernabé Caro, Estella Oncins & Pilar Orero (스페인)	실시간 자막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훈련 (Harmonised training in real-time intralingual subtitling)
Tatsuya Kawahara (일본)	자동 음성 인식을 사용한 자막 소프트웨어 (Captioning Software using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발제자 (국가)	제3세션: Stenography
Daniel Glassman(미국)	언어에 기반한 고급지능프로그램- Eclipse
Jianlong Xiao(중국)	인터넷 속기 기술의 도입과 장비 소개 (Application introduction and equipment display of internet stenography technology)
Jorge Bravo (아르헨티나)	속기의 역사 (The history of stenographic reviews in the world)
Boris Neubauer (독일)	국제 속기도서관 설립 방안 (Toward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library on shorthand)
발제자 (국가)	제4세션: Parliamentary accessibility
D'Arcy McPherson (캐나다)	기계속기와 기술협력 (Opening doors through legislation, machine shorthand and technological collaboration)
Michiel Haanen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원에서의 토론 자막 생방송 (Live subtitling of debates in the Dutch House of Representatives)
Tony Minichiello (영국)	하원의 절차: 접근 및 심의 (House of Commons Procedure: Access and Scrutiny)
Joel Snyder (미국)	오디오 설명: 의회 접근성에 대한 미래 관점 (Audio Description: future perspectives into parliamentary accessibility)

7. 속기경기대회 및 시상식



(경기대회 준비하는 선수들
-맨 뒷줄에는 AI 시스템으로 첫 출전하는 이탈리아 PerVoice사 출신의 Veronica)



(속기경기대회장)

○ 인터스테노 속기경기대회는 총 7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흘(7월 13일 ~ 15일) 동안 진행되었다.

7개 종목은 다음과 같다.

- 텍스트 프로덕션(TP: Text Production)
- 텍스트 코렉션(TC: Text Correction with pc)
- 워드 프로세싱(WP: Word Processing)
- 오디오 트랜스크립션(AT: Audio Transcription)
- 스피치 캡처링(SC: Speech Caputuring)
- 리얼타임(RT: Real Time)
- 노트 테이킹과 리포팅(Note taking and reporting)

○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 22개국에서 온 206명으로 최연소자는 11세이고 최고령자는 80살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38명,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29명, 체코 27명, 중국 24명, 헝가리 2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고, 그 외 약 10개국에서는 5명 미만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 우리나라는 3명(서정민, 정지은, 신현진)의 선수가 실시간속기 경기대회(Real time speech capturing)에 출전하였다.

○ 이탈리아에서는 PerVoice사의 베로니카(Veronica Cerbaro)가 Verbamatic Steno라는 기계를 가지고 새로운 실험 형식인 자동음성인식(ASR)과 라이브 편집으로 3개 종목(SC, AT, RT)에 출전하여 경기를 치렀다. 단 순위는 매기지 않았다.

○ 이번 속기경기대회는 지난 대회와 달리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당에서 각자의 헤드셋을 장착하고 혼합적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즉, PC-콘텐츠(TP, TC, AT, WP) 선수들뿐만 아니라 음성 캡처 대회(SC, RT, Note taking)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프란체스카(Francesca Marchionne: 이탈리아 속기사)가 고안해 낸 훌륭한 아이디어 때문이었다. 오디오 배급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각 선수들은 자신의 헤드셋을 꽂고 언어 채널을 선택하면 사전에 녹음된 오디오 파일(시험 문제)이 전송되는 것이다.

○ 경기대회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테이블마다 전기 플러그인이 설치되었고 선수들이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번호표가 부착되었다.

○ 대회 후 바로 채점 작업이 시작되어 당일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심판원들은 시험답안을 연령별(성인, 청소년, 아동 부문)로 구분·평가하는 작업을 한다.





(시상대에 오른 리얼타임 부문 수상자- 은메달 한국의 정지은 속기사)



(한국선수단, 인터스테노 회장 리안과 인증샷)

○ 경기대회 시상식은 7월 18일 폐막식 행사와 함께 마시모(Massimo) 극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7개 종목별로 성인·청소년·아동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체 33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발표하고 1위 2위 3위(금, 은, 동)를 차지한 선수들은 시상대에 올라 수상하게 된다⁴⁾.

○ 이번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 경기에서는 미국에서 1위(Julianne LaBadia)와 3위(Deanna Boenau)를 하였고, 우리나라의 장지은 속기사가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정민 선수는 5위, 신현진 선수는 10위에 올라 한국 선수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시상식 후 한국대표단은 수상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을 안고 송별만찬장으로 향하는 대형버스에 올랐다.

4) 각 종목별 속기경기대회 결과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ntersteno.org/wp-content/uploads/2019/08/2019-Cagliari_Resultlist.pdf

8. 과학위원회 회의(Scientific Committee Meeting)

○ 과학위원회는 2007년 프라하 총회 때 창립된 이래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2019년 7월 17일(수), 과학위원회 위원장인 카를로(Carlo Eugeni)의 주재 하에 과학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한우 교수님이 과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우선 “티로(Tiro)”라는 인터스테노 온라인 저널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Tiro는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의 노예였으나 속기 표기법을 만든 공으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티로”의 편집장에는 에어로 부틸레넨(Eero Voutilainen)이 임명되었다. 편집위원은 헨크잔 에라스(Henk-Jan Eras), 카를로 유제니(Carlo Eugeni), 크리스틴 피프스(Christine Phipps)가 맡기로 하였다.

○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장 샤를 르 마손(Jean-Charles Le Masson)이 이끄는 프로젝트인 새로운 언어 비교 시스템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터스테노 경기대회(AT, SC, RT)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각 언어를 음절수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연구 과제는 각 언어의 화자가 내는 소리(phonemes)의 양과 그것들을 적는 데 필요한 문자(graphemes)의 양 사이의 비율에 근거하여 보다 공정한 측정을 바탕으로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은 특정 언어가 더 이상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0. 속기 관련 간담회 개최



(중국속기대표단과 간담회)



(일본 가와하라 교수와 면담)

○ 인터스테노 총회 기간 중에 중국대표단도 우리와 같은 호텔에 묵었던 터라 양국은 이를 계기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7월 15일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양국 대표단은 속기 관련 당면 이슈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속기 관련 지속적인 우호협력 및 공동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음성인식술을 속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 7월 16일 콘퍼런스에서 자동음성인식(ASR)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 일본 교토대학교의 가와하라 교수를 만나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일본 중의원에서 회의록작성시스템에 음성인식기술을 2004년부터 도입하게 된 배경과 현황, 그리고 중의원 속기사와 편집인의 근무 현황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가와하라 교수는 2011년 인터스테노 파리 총회 이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11. 송별만찬



(송별만찬장에 모인 400여 명의 각국 대표단)



(송별만찬행사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 7월 18일, 시상식 겸 폐막식 후 각국 대표단 일행은 주최 측이 마련한 대형버스를 타고 마지막 작별 행사를 위해 칼리아리 외곽에 위치한 바칼라만자(La Locanda di Baccalamananza)로 향하였다.

○ 바칼라만자는 방대한 규모의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 가운데 수영장이 있고 이를 둘러싸고 야외 송별만찬장이 마련되었다. 이곳에는 400여 명의 인

터스테노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회원 모두는 바(American Bar)에서 제공하는 웰컴 음료를 들고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웠고 어둠이 내리면서 각 테이블에서는 와인을 곁들인 만찬을 하면서 각국 대표단들과 환담하였다. 목가적이고 매혹적인 분위기에서 이어지는 매우 활기찬 만찬은 다음 총회에서 또 만나자는 약속들을 하며 밤늦도록 아쉬움을 달랬다. 그런 하루가 지나고 공식 일정 마지막 날에는 카를로포르테(Carloforte)섬을 방문하여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뜨거운 태양빛을 만끽하였다. 이로써 인터스테노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다.

■ 주요 시사점 및 성과

○ 인터스테노는 130년이 넘는 깊은 역사를 가졌고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된다. 총회는 회원국(32개국)의 속기사를 비롯하여 IT 업계 및 기록관련 분야에서 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축제 같은 행사이다.

○ 인터스테노 총회는 전 세계에 한국의 속기계와 기록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제35차 인터스테노 총회(개최지: 스위스 루체른)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대회 출전 종목의 다변화를 꾀하고 IPRS 미팅이나 콘퍼런스에서 한국 속기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속기경기대회의 리얼타임(RT) 종목에서 한국이 은메달(2위)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속기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 이번 속기경기대회에는 자동음성인식기술(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이 실험적으로 첫 출전하였다. 이탈리아의 PerVoice사에서 베로니카(Veronica Cerbaro)가 Verbamatic Steno라는 기계를 가지고 3개(SC, AT, RT) 종목에 참가한 것이다.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베로니카는 스피치 캡처링(SC) 종목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어(15분 실시, 분당 497글자, 오류 4자) 신기술 도입 및 활용에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 IPRS 미팅과 콘퍼런스에서는 자동음성인식 등 기술적인 부분을 속기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주제발표가 많았다. 이를 통해 각국의 기록시스템과 자동음성인식 시스템에 대한 발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소리자바에서 인공지능(AI) 속기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여 총회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음성인식기술이 기록 분야에 도입되더라도 그 기술을 다루는 속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기술을 대하는 세계 속기계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